

전주국제영화제, '영화는 계속된다'

총 10편 '계속된다' 영상 시리즈로 캠페인 출발... 감독·배우 9명 동참

22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올해의 슬로건인 '영화는 계속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되는 영화, 영화인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주국제영화제의 기획을 바탕으로, 영화 주간지 '씨네21'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가 힘을 모았다.

'영화는 계속된다' 캠페인은 총 10편의 '계속된다' 영상 시리즈로 출발한다. 우선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클립을 '간다, 웃다, 울다, 잠들다, 막다'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갈무리해, '일상 속의 영화' 그리고 '영화라는 일상'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 영상 5편이 소개된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와 '씨네21', CJ CGV가 협업하는 5편의 '계속된다' 영상 시리즈에서는 한국영화계를 대표해 김보라, 이준익, 임순례, 조성희 감독과 구교환, 김성령, 유준상, 이솜, 이주영 배우(가나다 순) 등 총 9명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들이 출연한 영상은 전주국제영화제와 '씨네21', CJ CGV 공식 유튜브 및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전국 CJ CGV에서 극장 상영도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 촬영 현장에서 만난 이름 영화인들의 인터뷰와 화보는 4월 3일 발행되는 씨네21 창간 26주년 특대호(1300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관객들을 위한 '영화는 계속된다' 캠페인 참여 이벤트도 시작될 예정이다. 가상의 극장 공간이 개성 있는 관객 캐릭터로 가득 채워지는 콘셉트의 '계속된다(가제)' 관객 이벤트는, 지난해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가 주최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온라인 쿼어 페스티벌 '우리

는 없던 길도 만들지'의 웹사이트 제작사 '스투키 스튜디오'와 협업한다. 또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예매권 및 온라인 관람권을 비롯해 CJ CGV 예매권과 스페셜 굿즈 등 풍성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건너고 있는 이 시대, 영화의 의미를 묻는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를 출간할 예정이다.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는 아르헨티나의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가 지난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며 남미를 중심으로 세계 영화인 83인의 에세이와 시, 사진,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감상을 받아 엮어낸 출판 프로젝트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어판이 제작된다. 김보라, 김진아, 김초희, 민규동, 장건재, 장우진 감독을 비롯해 김영진, 김혜리, 달시파켓, 이상용, 장병원 영화 평론가, 제작자인 심재명, 김순모 대표 등 29명의 한국 필진이 참여했으며, 아파차풍 위라세타군, 케이 형제, 칸틴 등 33명의 외국 필진도 글을 보내와,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되는 영화의 미래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드러내었다.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는 영화제가 개막하기 전 출간될 예정이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와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펼쳐진다. /양은경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전주 한지장 후계자 양성 교육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전주 한지장 후계자 양성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 3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전주 한지장 후계자 양성 교육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양성 사업은 전통 한지의 복원과 생산, 전주 한지의 명맥 유지와 기술 계승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도제식 교육, 한지장 노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후계자 선발 및 교육 과정은 다양한 세대가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친밀도 높은 맞춤형 매체를 활용,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김현종·강갑석·김민수·최성일 등 전주 한지장 4인의 현장 실습 교육과 한지산업 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이론 교육으로 구성됐

다. 전당은 전주 한지장 후계자를 위해 추후 한지 관련 공공기관 및 생산업체 취업 추천 또는 한지마을 내 공방 입주를 통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주 한지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산업연구팀(063-281-1530)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태 원장은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와 전주 한지장 후계자 양성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 전통 한지의 확산 보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한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6년 5월 30일 시행)에 따라 2017년 4월 전주 한지장 4인(김현종·강갑석·김민수·최성일)을 지정하고, 전주의 후식골에 전통 한지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뉴시스

박명옥 작가 기획 초대전 순창서 열려

공립옥천미술관서 내달 2일까지

순창군이 다음달 2일까지 순창공립옥천미

술관에서 박명옥 작가의 기획전을 갖는다. 이번 기획전에는 박 작가의 세계관이 담긴 수채화 30여점이 전시된다.



박 작가는 군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을 수료했으며, 2009년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특선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 2017년 삼진강 전국수채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를 인연으로 이번에 군이 초대전을 기획했다.

박 작가 그림에는 옥수수과 체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으며, 이와 함께 물거품을 그려 낸 것이 특징이다. 박 작가는 그림을 통해 생명성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자연현상을 물거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담아 생명의 탄생을 표현해 내고자 했다.

지난 2일 미술관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가진 박 작가는 "커다란 통에 담긴 옥수수들에 차가운 물을 들이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품들을 통해 생명의 탄생 또는 살아있는 증거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품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품이 가장 거친 것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람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힐링·치유 공연

군산시립예술단, 10일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봄, 설렘 주의보' 개최

군산시립예술단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을 개최하며 힐링과 치유의 공연을 선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봄, 설렘 주의보' 야외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공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곡 등 심리적 안정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 꾸며, 마음의 위안이 음악을 통해 진심으로 전해지는 힐링과 치유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

다. 또 시립예술단은 좀 더 시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27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통해 마을적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우울감 해소는 물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일상에 지치고 고단함 속에 살아가고 계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